

원유 등급제 실시 후의 세균수 감소

강국희, 전태욱

성균관대학교 낙농공학과

원유의 등급제가 실시된 1993년 6월 후 부터 전국적인 검사 data가 월별로 지역별로 농림수산부가 축위생과에 집계되고 있으며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, 세균수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급제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.

전국적인 월별변화를 보면 93년6월 등급제 실시 당시에는 세균수 10만이하 (1등급)를 생산하는 농가수는 전국농가의 22%였으나 10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약 65% (2~3월)로 향상되었다가 여름철에는 다시 46% (7~8월)로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해에도 이러한 계절적인 현상은 되풀이되었다. 여름철의 원유 관리(목장, 집유과정)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.

전국지역별로 보면 세균관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은 95년 말 기준으로 제주도 (1등급 95%)와 강원도 (1등급75%)였으며, 이 두개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변화가 없었다. 기타 지역은 모두 계절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여름철에는 원유등급이 낮게 나타났다. 원유품질이 나쁜 지역은 대구, 대전, 전남, 충북, 인천, 광주, 경남 (1등급 50~60%), 그 다음은 경기, 충남, 전북, 경북 (1등급 61~70%)로 나타났다. 대전, 대구, 인천, 충남, 경기, 전남지역 등에서는 94년 4월의 등급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유절저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조사되어야 할 부분이다.

이러한 지역별 차이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장규모, 위생관리방법의 차이, 검사방법의 영향 (Bactoscan, Bactometer, Malthus) 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.